

# 昭和初期 프롤레타리아 여성소설\*

- 平林たい子の『施療室にて』와 佐多稻子の『キャラメル工場から』을  
중심으로 -

이 지숙\*\*

---

## 目次

---

1. 서론
  2. 근대 일본여성문학개관 (明治開化期부터 昭和初期까지)
  3. 昭和初期 프롤레타리아 여성작가 - 平林たい子와 佐多稻子 -
  4. 『施療室にて』와 『キャラメル工場から』에 나타난 가부장적 억압과 계급적 억압의 양상
  5. 결론
- 

## 1. 서론

지금까지의 일본근대문학에서는 <남성 우위와 여성 멸시>라는 이념 하에, 근대여성작가로는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와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만이 평가되어져 왔다.<sup>1)</sup> 문학사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여성문학은 남성문학과 비교해볼 때 완성도에 있어서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예를 들어,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가 그 작품에서 언급한 <동양>과 <서양>, <에고 이즘> · <개인주의> · <문명비판>이라는 폭넓은 주제가 여성문학에서는 극히 제한된 형태로 다루어질 뿐이다.

신여성의 자각과 해방에 공헌한 大正期の 여성문학 『靑鞆』(1911-1916)에서는 남녀 차별적 사회에서 여성으로서의 개인의 존중을 갈구하는 <개인주의>가 모색되었다. 여기에서 신여성들은 여성의 자아실현을 가로막는 상대가 애인 · 남편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분노와 질타를 비판적으로 그려냈다.<sup>2)</sup> 즉, 大正期の 여성문학은 <남녀문제>의 영역을 탈피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昭和初期의 여성문학에 이르러서는 <남녀문제>를 넘어서 계급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며, 사회

---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어진 「한 · 중 · 일 근현대 여성소설 비교연구」의 일환으로 쓰여졌음.(KRF-2002-074-AS1089)

\*\* 충남대학교 강사 일본근대문학

1) 아래의 두 저서를 기점으로 <여성 시점>에 의한 근대문학의 주체적인 재평가가 시도되었다. 江種満子 · 漆田和代編(1992), 『女が讀む日本近代文學 - フェミニズム批評の試み』, 新曜社. 岩淵宏子 · 北田幸恵 · 高良留美子編(1995), 『フェミニズム批評への招待 - 近代女性文學を讀む』, 學藝書林.

2) 『靑鞆』의 시대는 사랑의 대상이었던 남성이 실제로는 여성의 억압자 · 지배자가 된다는 구조를 명확히 자각해 가는 시대였다.

栗原幸夫(1997), 「文學史を讀みかえる」, 研究會編, 『廢墟の可能性』, インパクト出版社, p.154.

성이 확대된 개성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사회주의운동과 프롤레타리아문학<sup>3)</sup>의 대두라는 시대상황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고는 明治開化期부터 昭和初期까지의 여성문학의 전개 양상과 더불어, 昭和初期의 대표적 프롤레타리아 여성작가인 히라바야시 다이코(平林たい子)와 佐多稲子(사타 이네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두 작가의 초기작품인 『시료실에서(施療室にて)』(1927)와 『캐러멜 공장에서(キャラメル工場から)』(1928)에서 나타난 여성소설의 특성에 대해서도 정밀히 검토해 보겠다.<sup>4)</sup> 이전 『靑鞆』소설과는 달리 이 두 소설에서는 여성이 자신을 <억압·지배>하였던 남성과 함께, 사회변혁을 위한 공동투쟁에 참여한 프롤레타리아 여성문학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남성작가 중심의 프롤레타리아문학과는 차별성을 지니며, 문학사적으로도 연구·검토할 가치가 충분한 여성문학작품들이었다. 히라바야시 다이코와 사타 이네코는 여성문학이 화려하게 꽃을 피운 昭和初期(1927-28년) 시기에 프롤레타리아작가로서 역량을 인정받은 소설을 발표함으로써 직업작가로서 위치를 확립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두 작가가 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해 인식한 昭和初期 시기의 여성의 현실이 무엇이며 여성의 현실문제를 어떠한 목소리로 담아 노력했는지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2. 근대 일본여성문학개관 (明治開化期부터 昭和初期까지)

본고에서는 昭和初期 여성문학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근대 여성문학의 계보를 살펴 보겠다.

明治開化期부터 大正期の 여성문학은 여성해방과 자립사상을 내세운다. 이는 明治30년대 초기에 나타난 일본여성교육의 핵심이라 일컬어지는 현모양처사상에 길항하는 것이었다. 이 무렵부터 차별적 여성정책에 의해 여성을 家에 봉쇄하려는 국가시스템이 시작되었다. 전통적인 일본 여성교육은 江戸中期로부터 明治開化期에 이르는 「온나다이가쿠(女大學)」<sup>5)</sup>에 집성되어 있다. 여성을 남성의

3) 일본의 프롤레타리아문학은 明治30년대 이후의 <社會主義文學>, 大正期에 접어들어 <勞動文學> <民衆文學> 등을 이어받아, 1921년 창간된 「씨 뿌리는 사람(種蒔く人)」에 의해 反戰·反軍國主義·反資本主義運動으로 시작되었다. 1927년 세계공황이 일본에 급파,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져 노동쟁의, 소작쟁의가 격화·증가했다. 1928년부터 32년에 걸쳐 전성기를 구가한 프롤레타리아문학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이 뒷받침되었다. 프롤레타리아문학이란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서서 자본주의의 타도,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목적으로, 현실을 리얼리즘의 수법에 의해 그리는 문학을 뜻한다.

下中邦彦(1982), 『日本文學事典』, 凡人社, p.339.

渡邊澄子(1998), 『日本近代女性文學論』, 世界思想社, pp.11-12.

4) 참고로 본문의 텍스트는 『日本プロレタリア文學集21 婦人作家集(1)』, 『日本プロレタリア文學集22 婦人作家集(2)』(新日本出版社, 1987)을 사용하였다.

5) 女子의 修身·齊家の 마음가짐을 仮名文으로 적은 글. 封建道徳으로 一貫하며, 江戸시대의 女

하위자, 열등자, 피지배자라는 위치에 고정시키고 있는 「온나다이카쿠」의 사상은 三從七去와 明治民法이 규정한 현모양처의 근간이 되었다. 明治期の 계몽가로 잘 알려진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저서 『학문의 권장(學問のすすめ)』에서 새로운 일본이 창출해야 할 인간상으로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독립된 인격이어야 한다고 역설하였지만, 明治期の 여성교육은 남성에 의한 부국강병을 내조하는 현모양처가 유일한 목적이었다.

이러한 봉건적 제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선구적인 여성작가<sup>6)</sup>와 여성 자유민권운동가이었다. 일본에서 여성의 자아의식과 여권문제가 인식되기 시작된 것은 「메이로쿠샤(明六社)」의 멤버와 明治10년대의 자유민권운동가들에 의해서이다. 자유민권운동은 天賦人權論을 근간으로 한다. 이 시기에 남녀평등과 여권이 대두되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남성 중심적 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관념적 이론에 불과했다. 자유민권기에 활약했던 여성 민권운동가의 대표적 인물로서 기시다 도시코(岸田俊子)를 꼽을 수 있다.

일본 최초의 여성 자유민권운동가인 기시다 도시코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육을 받고 못 받는 차이 또는 세상에 접하는 견문의 넓고 좁음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얻은 정신력에 있어서의 차이는 아닐 것이다.(男子のすぐれたるもの女子よりも多かるの理は教ふると教へざるとの差ひ又世に交ることの廣きと狭きに依るものにて自然に得たり精神力に於て差異あるものにははべらぬぞかし)」(1884, 「동포자매에게 고함(同胞姉妹に告ぐ)」)라며 많은 여성들을 각성시켰다. 그녀는 가부장제 체제 하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왜 우월한 존재인가를 직시하고 있다. 이것은 남성에게만 주어지는 차별적인 교육환경과 사회적 혜택에 의한 것이다. 이로 인해 남성은 사회적 강자로 군림할 수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여성은 종속적이며 열등한 존재로 머물게 된다. 나아가 天賦人權論을 말하는 자유민권 내부의 남존여비풍토를 논리 정연하게 비판하며 남녀동권을 당당히 주장한다.

大正期 일본 신여성의 선두주자인 히라쓰카 라이쵸(平塚らいてう)는 모리타 소헤이(森田草平)와의 <煤煙事件><sup>7)</sup>으로 스캔들의 세례를 받고있었다. 東京帝大를 졸업한 문학과와 日本女子大學 출신의 엘리트 여성의 <情死未遂事件>은 사회적 문제가 되어, 그 책임은 일방적으로 라이쵸에게 전가되는 상황이었다. 소헤이는 이 사건을 소재로, 『煤煙』(1909)을 「朝日新聞」에 연재하였다. 곤경에 처한 라이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이쿠다 쇼오코(生田長江)의 권유로 『靑鞆』(1911)을 간행한다. 『靑鞆』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여성만의 손에 의한 여성문예잡지일 뿐 아니라, 일본 여성해

子一般 修身書로 넓게 사용되었다.

6) 일본 최초의 페미니즘 소설로 일컬어지는 시미즈 시킹(清水紫琴)의 『깨어진 반지(こわれ指輪)』(1891, 「女子雜誌」)를 참고해보면, 당시 여성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제시된 여자의 부덕은 「그저 어른들끼리 정해 놓은 신랑이 있다고 합시다. 그 신랑감이 갑자기 어린 나이에 죽었다고 하면 신부는 코를 베고 귀를 잘라서라도 절개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또한 시어머니가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며느리를 목 졸라 죽이려고 해도, 며느리는 한번 시집 왔다면 그 집사람이라 하여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단지 하는 것을 이 시대 부인의 미덕」이라 하였다. 여주인공은 여학교에서 유교적이고 극단적인 남편에 대한 충절과 복종을 배웠으며, 가정에서는 가장인 아버지에게 절대 복종하라는 교육을 받는다. 인생의 중대사인 결혼조차 아버지의 명령에 의할 정도로 이러한 봉건시대의 여성에게는 온순, 정절, 헌신, 인내가 요구되었다. 외부와 차단된 家라는 협소한 세계에 안주하는 여성의 삶이 강요되었던 것이다.

今井泰子・薮貞子・渡邊澄子編(1987), 『短編 女性文學 近代』, おうふう, p.10.

7) 대학을 졸업한 히라쓰카 라이쵸(平塚らいてう)가 閨秀文學會의 강사인 모리타 소헤이(森田草平)와 알게되어, 1908년 3월 유서를 남기고 가출. 시오바라(塩原)의 오바나(尾頭)고개에서 자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사건.

방운동의 원점이 되었다. 역사적인 창간사 「태초 여성은 태양이었다(元始女性は太陽であつた)」는 가부장 제도하의 봉건적 주종관계에 구속되어져 있던 여성층이 발언한 인권선언이었으며, 인간으로서 평등을 구가한 생명찬가였다. 당시 언론은 『靑鞆』에 모인 여성들을 <신여성(新しい女)>이라고 야유·조소했지만, 「나는 신여성이다(私は新しい女である)」(1913)로 마이너스 이미지를 뒤엎는 강렬한 논리를 전개했다.

1911년 9월 히라쓰카 라이초에 의해 창간된 『靑鞆』<sup>8)</sup>은 1916년 2월 영구휴간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뒤흔들며 女性解放運動의 거점이 되었다. 그녀들은 문학활동을 통해, 여성을 둘러싼 불합리한 현실을 깨닫고 그 현실에 불만과 의문의 목소리를 드높였다. <신여성>이라는 조소를 받으며, 언론과 정부의 탄압을 받기까지 했다. 자각한 <신여성>들은 봉건적인 家制度의 질곡에서 해방을 호소하며, 여성해방 투쟁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여성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유를 발언하고 남성과 동등한 행동을 한 것은, 근대일본 국가가 國體로서 규정한 天皇絶對体制, 그 핵심인 家制度를 깨뜨리는 것이었다.

昭和문학의 특색 중 하나로서 여성문학의 발전을 들 수 있다. 昭和初期인 1927년,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융성기에 있어 여성문학은 찬란한 빛을 발휘했으며,<sup>9)</sup> 1928년 여성문학은 화려하게 새 출발을 하였다. 사타 이네코의 『캐러멜 공장에서』, 엔치 후미코(円地文子)의 『晩春騒夜』, 하야시 후미코(林芙美子)가 『放浪記』로 문학적 출발을 하고, 히라바야시 다이코의 초기가작 『夜風』 『荷車』 『때리다(殴る)』의 발표 및 전년에 발표한 초기대표작 『시료실에서』를 수록한 第一著作集이 간행되었다.<sup>10)</sup>

昭和初期의 일본문학은 프롤레타리아문학과 新感覺派<sup>11)</sup>·모더니즘문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여성문학 역시 대조적인 이 2대 조류로 설명될 수 있다. 종래의 부덕을 강조하는 현모양처의 삶을 의심하고 새로운 자기주장을 펼친 大正期 여성문학과는 다른, 격동하는 시대흐름과 더불어 계급분화양상을 보인다. 프롤레타리아 여성작가로서는 ナップ(나프)계의 미야모토 유리코(宮本百合子)와 사타 이네코, 文戰派인 히라바야시 다이코가 있고, 同伴者 작가인 노가미 야에코(野上弥生子), 모더니즘 계열로 하야시 후미코와 우노 치요(宇野千代)를 들 수 있다.<sup>12)</sup> 大正期の 『靑鞆』는 주로 히라쓰카 라이초와 같은 상류계급출신의 여성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이와 비교해보면, 昭和初期에서는 노가

8) 당시의 여성작가들이 대부분이 『靑鞆』에 참여했다. 發起人은 나카노 하쓰코(中野初子), 야스모치 요시코(保持研子), 기우치 데이코(木内錠子), 히라쓰카 라이초(平塚らいてう), 모즈메 가즈코(物集和子) 5인. 贊助者는 하세가와 시구레(長谷川時雨), 오카다 야치요(岡田八千代), 가토 가즈코(加藤鑄子),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 구니키다 하루코(國木田治子), 고가네이 기미코(子金井喜美子), 모리 시게(森しげ) 7인. 社員은 이와노 기요코(岩野清子), 노가미 야에코(野上弥生子)와 더불어 후에 오다케 고키치(尾竹紅吉), 가미치카 이치코(神近市子), 이토 노에(伊藤野枝) 등의 수재들이 잇달아 참가하여 근대 여성문학의 근원이 되었다.

脇田晴子・林玲子・水原和子編(1987), 『日本女性史』, 吉川弘文館, p.228.

渡邊澄子(1977), 「<新しい女>の實相」, (三好行雄・竹盛天雄編, 『近代文學3』, 有斐閣双書, p.245.)

9) 渡邊澄子(1996), 『女々しい漱石、雄々しい鷗外』, 世界思想社, P.18.

10) 村松定孝・渡邊澄子編(1990), 『現代女性文學辭典』, 東京堂出版, p.12.

11)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같은 시기에 예술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려고 했던 것이 1924년에 창간된 「文芸時代」이다. 이 잡지에 모인 동인들을 신감각파(新感覺派)라고 한다.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혁명의 문학을 지향한데 반하여, 신감각파는 근대문학의 주류인 리얼리즘을 부정하고 문학 기법과 표현의 혁명을 추구하였다.

한국국어일문학회(2003), 『키워드 읽는 日本문학2 나쓰메 소세키에서 무라카미 하루키까지』, 글로세움, p.151.

12) 岩淵宏子(1988), 「女と言説」, 『講座昭和文學史第一卷』, 有精堂, p.167.

미 아예코와 미야모토 유리코 등의 인텔리겐치아 계층과 히야시 후미코, 히라바야시 다이코, 사타 이네코와 같은 노동자·서민계층에서 작가로 성장하는 계층의 다양성을 지닌다.

이 중에서 특히 프롤레타리아 여성작가들의 활약을 주목하고 싶다.<sup>13)</sup> 앞에서 언급한 대표적 3명의 작가와 더불어, 보다 구체적인 작가의 예를 들어보겠다. 프롤레타리아문학운동으로 검거되어 옥중생활을 보낸 히라바야시 다이코와 캐러멜 공장에서의 체험을 그린 사타 이네코의 작품에서는 무산계급의 문제와 투쟁이 중시되었다.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계급사회를 부정하며 비전향, 전쟁에 비협력적 자세를 잃지 않았던 미야모토 유리코, 계급사회의 모순을 자각해 가는 여공의 비참한 현실을 조명한 야다 쓰세코(矢田津世子), 가혹한 노동조건 하에 처한 무산계급 여성이 사회 모순에 저항하며 삶의 의지를 표명한 마쓰다 도키코(松田解子), 작가의 노동체험에 근거한 자전적 소설을 완성한 나카모토 다카코(中本たか子), 빈곤한 농촌과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가의 실상을 파헤친 히라바야시 에이코(平林英子)등. 이 시기 다수의 여성작가들이 프롤레타리아문학 운동에 참가한 주요 동기는, 그녀들이 지향한 사회주의 사회 실현이 진정한 여성해방·남녀평등을 가져다 준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明治開化期부터 大正시대의 여성문학이 현모양처주의에 대한 반발, 家로부터의 벗어나기 위해 전통적인 결혼제도를 부정하며 <個>로서의 인간을 자각한데 반해, 昭和初期 프롤레타리아 여성작가들은 주로 하층노동자·서민층여성과 궁핍한 농촌여성을 주인공으로 부각시킨다. 그녀들은 자신이 처한 사회적 상황을 직시하며 여성도 사회 속의 일원으로 자각해 가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지니게되었다.

본고의 3장에서는 지금까지 애정과 상극의 대상이었던 남자들과 함께 협력·투쟁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는 무산계급 해방투쟁에 동참하게 된 히라바야시 다이코와 사타 이네코 두 여성작가로 연구 범위를 한정시켜, 이에 대해 정밀히 검토해보겠다.

### 3. 昭和初期 프롤레타리아 여성작가

- 平林たい子와 佐多稻子 - <sup>14)</sup>

13) 治安維持法下の 탄압이 있던 1928년에는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의 『초봄의 바람(春さきの風)』, 고바야시 다키지(小林多喜二)의 『一九二八年三月十五日』, 구라하라 고레히토(藏原惟人)의 『프롤레타리아·리얼리즘으로의 길(プロレタリア・リアリズムへの道)』이 발표되면서 프롤레타리아문학운동은 高揚期를 맞이했다. 이를 계기로 하여 프롤레타리아문학운동은 全戰線的前進을 이루었으며, 여성작가의 작품은 지금까지의 문학적·사상적인 미숙성과 흥미를 넘어 충실한 문학적 성과를 거두었다.

山本功(1987), 『日本プロレタリア文學21 婦人作家集(1)』, 新日本出版社, p.441.

14) 히라바야시 다이코와 사타 이네코의 문학을 비교·검토한 논문으로 오즈카 히로시(大塚博), 하세가와 케이(長谷川啓)가 있다. 오즈카 히로시는 두 작가의 프롤레타리아 작품 양상의 공통점으로 작가 자신의 체험에 근거한 자전적 소설이라는 점과 여주인공들의 성장소설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하세가와 케이는 사타 이네코의 문학이 여성의 일상성을 이끌며 결국 상식적인 사고구조를 넘지 못하는데 비해, 히라바야시 다이코의 문학은 종래의 관습적인 여성의 “自然”과 “感想”에 반항해 제도를 무시한 “常識”의 경계를 허무는 “非日常”을 표현한다고 했다. 본고에서 필자는 오즈카 히로시의 지적처럼 히라바야시 다이코와 사타 이네코의 문학이 시대 조류를 반영한 자전적 소설이라는 점을 중시했다.

大塚博(1980), 「女流の前線」『國文學』, 第25卷15号12月号, 學燈社 pp.84 - 88.

長谷川啓(1992), 「フェミニズムの言語」『國文學』, 第37卷13号11月号, 學燈社, p108.

미야모토 유리코는 昭和初期의 프롤레타리아 여성문학에 대해, 「일본의 역사 중에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있었던 것은 明治維新이 해결치 못한 사회적·문화적 모순을 근대 사회과학의 빛 안에서 정리·해결하려고 한 것이었다. (中略) 사타 이네코와 히라바야시 다이코 등의 여성작가는 지금까지의 여성작가와와는 달리, 여성으로서 빈곤과 노동이라는 파란만장한 삶을 경험해온 사람들이다. 이러한 여성작가들에 의해, 진정으로 사회 모순을 인식하고 인간으로서 성장하려는 여성의 목소리가 문학에 나타나기 시작했다」<sup>15)</sup>라고 지적한다. 프롤레타리아문학은 히라바야시 다이코와 사타 이네코와 같은 프롤레타리아 여성작가를 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밑바닥 생활에 전전긍긍하는 여성들과 억압된 삶을 강요받는 여성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자기해방의 시도를 자극해 표출할 수 있게 하였다.

「昭和初期, 히라바야시 다이코·하야시 후미코·사타 이네코 등이 빈민계급에서 일제히 나타난 하나의 기운이 있었다」<sup>16)</sup>라며, 야마모토 겐키치(山本健吉)는 昭和初期 여성작가의 특색을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히라바야시 다이코와 사타 이네코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녀들은 처음부터 <빈민계급> 출신은 아니었다. 두 사람은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몰락으로 인해 가난을 강요받은 <몰락 소시민>이었으며, 그 후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의 전성기에 탄생하고 성장한 작가였던 것이다. 우선, 작가로 데뷔하기까지 두 사람의 성장과정을 살펴보겠다.

히라바야시 다이코의 자전적 소설인 「몰락의 계도(沒落の糸図)」(1933, 「新潮」)를 참고하면, 다이코의 조부는 지방 유지로 대규모의 機械製糸業을 창업했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집안은 급격히 몰락하게 되었다. 사타 이네코도 우체국 국장과 의사 부모를 둔 집안으로 결코 <빈민계급>은 아니었다. 어린 중학생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녀는 조부에게 맡겨져 유년시절을 보내게 되었다.

이 두 작가는 1905년과 1904년에 태어나, 프롤레타리아 작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고 그 역량을 인정받았던 것은 1927년의 『시료실에서』와 1928년의 『캐러멜 공장에서』이다. 따라서, 동시대 작가라고 해도 무리는 없을 듯하다. 게다가, 昭和初期 거의 비슷한 시기에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영향을 받아 히라바야시 다이코는 프롤레타리아소설을 쓰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아나키즘계통의 작가이었던데 반해, 사타 이네코는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서서 프롤레타리아 작가로서 성장한 재미있는 대조를 보인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문학에 눈뜨게 된 경위는 다르다. 히라바야시 다이코는 중학교 재학 중, 줄라의 「제르미날(ジェルミナル)」을 읽고 감동해, 역자인 사회주의자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에게 편지를 보내, 「資本論」과 「씨 뿌리는 사람(種蒔く人)」을 읽는 소녀였다. 이때부터 급속히 사회주의 사상에 눈뜨게 되어, 과격사상에 깊이 공감하게된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상경하여, 직업을 구하고서는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들과 교류하게 되었다. 한편, 사타 이네코는 1915년 小學校 5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 무책임한 아버지의 즉흥적인 생각으로 노동자의 길로 들어섰다. 캐러멜공장의 여공, 요정의 종업원, 마루젠(丸善)서점의 사무원 등의 경험하면서 그녀는 사회모순에 대한 노동계급의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그 힘든 노동의 곡절을 거치면서, 1926년 東京帝國大 학생이었던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를 옹호하는 「로바(驢馬)」<sup>17)</sup>의 동인들을 만나면서 문학적 자질을

15) 宮本百合子(1973), 『文學にみる婦人像』, 新日本出版社, p.27.

16) 山本健吉(1959), 『昭和の女流文學』, 實業の日本社, p.266.

17) 昭和문학의 개막을 알린 「로바(驢馬)」(1926 ~ 1928)는 무로 사이세이(室生犀星)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助)의 원조와 지지를 받았던 동인지로,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와 호리다쓰오(堀辰雄)와 구보가와 쓰루지로(窪川鶴次郎) 등의 동인들은 모두 세상의 관습과 상식을 깨뜨리고 자신의 진실로 살아가려는 젊은 문학가들이었다.

和泉あき·江種満子·渡邊澄子 共編(1982), 『現代文學』, 學術図書出版社, p.61.

꽃피울 수 있었다. 급진적 청년으로 구성된 인텔리겐치아 그룹 「로바」의 이론적 지도자였던 나카노 시게하루를 비롯한 멤버들에게 있어,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노동체험과 빈곤을 체험한 사타 이네코는 마돈나적 존재가 되기에 충분했다. 히라바야시 다이코는 여학교 시절부터 일찍이 사회주의 의식을 지니고 있었지만, 사타 이네코는 나카노 시게하루와 구보가와 쓰루지로(窪川鶴次郎)들과의 만남을 통해 비로써 사회주의적 자각에 눈뜨게된다. 따라서, 사타 이네코의 작품에는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세계관이 비교적 희박한 것도 그 경위를 살펴보면 납득이 간다.

이 두 사람은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좌절을 겪는다. 또한 그녀들은 그 당시 아이를 낳게되지만, 히라바야시 다이코는 아이를 잃고 만다. 이러한 경험 후, 한 남자(히라바야 다이코는 고보리 진지(小堀甚二), 사타 이네코는 구보가와 쓰루지로)를 만나 결혼하면서 계급의식을 확립할 수 있었다. 이렇듯 상당한 상이점을 지니지만, 이 두 사람은 昭和初期에 함께 문학적 출발을 하였다.

昭和初期 문단을 석권한 프롤레타리아문학은 「나프(ナッフ)」(全日本無産者芸術団体協議會=共産党派)의 문학운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프롤레타리아문학운동의 정통으로 주목받았다. 쇠퇴의 기로에 있었던 「勞芸」(勞農芸術家連盟=勞農派)에 속한 다이코는 급진적인 정치주의노선을 표방한 「나프」에 대항하며 작품을 썼다. 히라바야시 다이코의 『시료실에서』는 1927년 「勞芸」의 기관지인 「文芸戰線」에 발표되었다.<sup>18)</sup> 이 한 작품으로 다이코는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유력한 신인으로 촉망받아 이후 하야마 요시키(葉山嘉樹)와 함께 文戰派를 대표하는 실력과 작가가 된다. 『시료실에서』는 히라바야시 다이코의 실제 체험이 투영되어있다. 1923년 關東大地震 직후 다이코는 다수의 아나키스트들과 함께 체포되었지만, 도교를 떠나는 조건으로 곧 풀려났다. 당국은 아나키스트들이 大地震 후의 혼란을 틈타 소동을 일으킬 것을 우려한 것이었다. 1924년 다이코는 아나키스트인 남편 야마모토 도라조(山本虎三)와 함께 1년 정도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滿洲·大連을 방랑한다. 그러던 중 남편은 苦力(중국인 하층노동자)의 쟁의를 지도해 선로파괴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과로와 영양부족으로 임신 각기에 걸린 다이코는 홀로 남아 이국 땅의 施療病院에서 여자아이를 낳았지만, 아이는 영양실조로 인해 1주일만에 죽고 말았다. 작가의 이 비참한 체험이 작품 『시료실에서』의 소재가 되었다.

사타 이네코의 출세작은 1928년 「나프」의 기관지 「프롤레타리아 예술(プロレタリア芸術)」에 발표한 『캐러멜 공장에서』이다.<sup>19)</sup> 이 작품의 문학사적 평가를 살펴보면, 히라노 겐(平野謙)은 「초기 경험주의적인 勞働者문학」, 「질적으로 구별되는 프롤레타리아 문학」<sup>20)</sup>으로 평가한 것을 비롯해, 구로코 가즈오(黒古一夫)는 「가혹한 노동조건과 인권무시제도」하에서 신음하는 도시의 「전형적인 소녀노동자」<sup>21)</sup>의 출현을 받아들인 프롤레타리아문학으로 극찬했다.

18) 「文芸戰線」(1924 ~1932)은 「씨 뿌리는 사람(種蒔く人)」의 후신으로 출발한 잡지이다. 하야마 요시키(葉山嘉樹)의 『淫賣婦』와 『시멘트통 속의 편지(セメント樽の中の手紙)』, 구로지마 덴지(黒島伝治)의 『銅貨二錢』 등이 「文芸戰線」에 발표되면서, 關東大地震(1923)으로 타격을 받았던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새로운 발전을 가능케 했다.

中山和子(1999), 『女性作家評伝シリーズ8 平林たい子』, 新典社, p.51.

19) 「프롤레타리아 예술(プロレタリア芸術)」은 「文芸戰線」의 勞農芸術家連盟에 대항해 일본 프롤레타리아예술연맹을 조직한 急進派 잡지였다. 즉, 「文芸戰線」은 노동자출신 작가중심의 經驗派에 반하여 「프롤레타리아 예술」은 직접적 혁명을 지향하는 論理派의 急進的 인텔리 중심의 잡지였다. 노동자출신 작가중심 잡지 「文芸戰線」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여자 노동자의 체험이 그려진 사타 이네코의 『캐러멜 공장에서』가 「프롤레타리아예술」에 실린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奥野健男(1974), 『女流作家論』, 第三文明社, p.78.

20) 平野謙(1959), 『現代文學史』, 筑摩書房, p.21.

히라바야시 다이코가 그려낸 강렬한 개성을 지닌 여주인공과 달리, 『캐러멜 공장에서』에서는 컴컴한 변소에서 「어떻게 하든 학비를 마련해 小學校만은 졸업하라」는 고향 선생의 편지를 울면서 읽는 소녀노동자의 가련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 작가의 자전적 색채가 농후한 이 작품의 주인공 히로코(ひろ子)는 공장에서 가혹한 노동을 필사적으로 견디지만, 결국 집안의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 채 캐러멜 공장을 그만둔다. 하지만, 학교로 돌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의 삶은 이어지게 된다는 스토리가 담담한 필치로 묘사되어져있다. 게다가 이 작품은 나카노 시게하루와 남편 구보가와 쓰루지로의 격려를 받은 만큼 단순한 회상은 아니었다. 자본주의적 착취에 대한 반발이 명확한 이 작품은 프롤레타리아문학을 대표하는 수작의 하나로서, 발표당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캐러멜 공장에서』는 사상을 표면으로 이끌지는 않는다. 그 방법은 효과를 거두어, 어린 소녀를 노동의 현장으로 모는 사회 구조의 불평등을 선명히 드러낸다.

#### 4. 『施療室にて』와 『キャラメル工場から』에 나타난 가부장적 억압과 계급적 억압의 양상

##### (1) 『시료실에서』의 경우

히라바야시 다이코는 체제적 모럴(moral)에 직접적으로 반항하는 작가였다.<sup>22)</sup> 그녀는 스스로 다수의 남성과 성적관계를 가지는 등, 여성에게만 강요된 성적 속박을 부정하였다. 그녀는 훗날, 「나는 여자이기에 부정해야할 하나를 내 속에 지니고 있었다. 나는 사회에서 행해지는 가치판단을 스스로 뒤엎으며 통쾌하다고 부르짖었다. 그것은 정조를 부정하는 것이었다.(私は女であったから、否定すべき一つのものをも自分の中にもっていた。私は社會に行われている価値判断を自分の中でひっくりかえして、痛快を叫んでいたのである。それは貞操を否定することだった)」라며 「1955, 나의 이력서(私の履歴書)」에서 회고한다. 이는 「사회에서 행해지는 가치판단」인 여성의 「정조」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작가의 고백이지만, 『시료실에서』에 그려지는 여주인공인 「나」는 이러한 진보적 가치관을 보이지 않는다. 여주인공 「나」는 근대일본문학에서는 보기 드문 작열하는 듯한 개성을 지닌 인물<sup>23)</sup>로, 다음과 같이 다이내믹하며 강한 문체가 눈길을 끈다.

이 아이를 처음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도 나는 대지진으로 인해 혼란한 도쿄의 감옥에 있었다. 나로 인해 운명지어진 아이의 일생은 감옥 생활일지 모른다. 아니 그러나 그래도 좋다. 나는 이마가 넓고 눈은 작고 치켜 올라간 여자아이를 낳고 싶다. 좋다. 일본 볼세비치카를 감옥에서 기르자. (77쪽)

「이마가 넓고 눈은 작고 치켜 올라간」 일본의 볼세비치카를 기르려고 「가슴에 밀려오는 태동을

21) 黒古一夫(1988), 「都市労働者の論理」, 『講座昭和文學史第一卷』, 앞의 책, pp.82-83.

22) 나카야마 가즈코(中山和子)는 히라바야시 다이코를 「昭和初年期의 선진적인 여성해방가」로 평한다. 1970년대 성행했던 래디컬 페미니즘(ラディカル フェミニズム)의 사상처럼, 다이코는 「여성정복 위에 세워진 문화」=「남성문화」를 파괴하고 여성의 「新文化」를 창조했었다. 이는 래디컬 페미니스트인 애드리언 리치(Adrienne rich)의 주장과도 상통하는 새로운 사상이다.

中山和子(1999), 앞의 책, pp.175-176.

中山和子(2000), 「平林たいこ」, (渡邊澄子編, 『女性文學を學ぶ人のために』, 世界思想社, p.118.)

23) 中山和子(1976), 「平林たい子 — 初期の世界」, 文芸研究(明治大學), p.114.



거역하면서, 여주인공은 감옥에서 회파람을 분다. 예리한 성격과 권력에 반역하는 강한 개성이 발휘된 이 여주인공의 등장으로 인해 다이코는 프롤레타리아작가로서의 권위를 확립할 수 있었다.

무산계급 운동가로서 「변혁되는 미래」를 믿고 있었던 「나」와 남편은, 「사회의 변혁」을 이루려하는 「동지로서의 남녀관계」로, 이들은 인간적·사회적 평등과 더불어 평등해야 할 부부였다. 하지만 이들 부부사이에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사고와 현모양처 사상에 지배당하는 「나」가 엄연히 존재한다. 『시료실에서』중의 다음 부분에 주목해 보겠다.

나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으려 했다. 그런 식으로 테러를 행하면, 이렇게 된다고 예감한 나로서는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했다. 남편과 세 사람의 동지들은 내 생각을 임신한 여자의 결단력이 결여된 꾸물거리는 소심증이라고 비웃었다. 그러나, 결과는 내가 예상 한대로이다. 하지만,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면 모두의 목표를 위해 전진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남편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운동하는 자의 길이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도리이다. 나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77쪽)

「나」의 의견을 무시하며 테러를 일으킨 남편이 투옥되고, 출산과 병으로 투옥이 지연된 「나」는 남편과 공범으로 출산을 마치면 수감될 운명이었다. 「나」는 남편의 테러가 실패할 것이라는 「명백」한 「예측」을 하였지만, 남편은 「나」의 예상을 「임신한 여자의 결단력이 결여된 꾸물거리는 소심증」이라며 귀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비참한 상황을 초래한 남편의 잘못을 비판하지 않고, 남편에게 순종하겠다는 「아내의 길(妻の道)」이라는 가부장적인 사고 즉, 教育勸語에 의거한 구 도덕에 납득당하고 만다. 즉, 「나」는 논리가 결여된 애매한 판단을 통해, 「아내의 길(妻の道)」을 떠올리며 남편의 모든 상황을 긍정해 버린다. 여기서 남편의 행동에 반대하는 논리를 남편과 대등하게 논의해 설득하려 하지 않고, 젠더(gender)를 긍정한 아내의 의식이 엿보인다. 바꾸어 말하면, 가부장제도에 구슬러진 연약함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다.

『시료실에서』에서 계급적 억압에 대한 「나」의 태도 또한 명확치 않다. 행로병자가 무료로 수용되는 자선병원인 시료실은 市에서 받는 보조금과 지역유지들이 보내는 기부금으로 운영되었다. 병원 원장은 환자 치료에 쓰여질 돈을 자신의 사생활비로 빼돌리며, 손이 많이 가는 중병환자를 떠맡는 일은 곤혹스러워했다. 심지어 아직 살아있는 환자를 시체 안치소로 옮겨가는 잔혹함도 보인다.

「식민지의 먼지로 오염된 공기와 허술한 식사」로 인해 「나」는 화장실에서도 다리가 아파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임신 각기병에 걸렸다. 「나」는 자신의 젖을 아기에게 줄 경우 아기가 사망할 것을 알고 있었으며, 태어난 아기에게 하루 1습의 우유도 사주지 못하는 극심한 빈곤에 처해져 있었다. 원장의 회진 때 「나」의 머리맡에 있던 빈 주사 병이 발견되어, 간호부는 고가의 약을 사용한 탓에 원장에게 심한 질타를 받는다. 이를 목격한 「나」는 원장에게 부탁해도 우유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아기를 위한 우유획득 투쟁을 단념해버린다.

“이것은 오늘 아침 이 환자에게 주사한 약품입니다.”

“주사? 주사는 부장의 허락을 받았어?”

“아니요. 사실은 실신했기 때문이에요..... 항상 뇌빈혈을 일으키는 버릇이 있기에, 허락 받기를 포기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녀석이 있을까?”

갑자기 파란 유리가 가루처럼 바닥에 깨지며 사방에 날려 코르크가 굴러 떨어졌다.

“자네는 2년씩이나 간호부를 했기에, 이 정도의 독일어는 읽어내겠지. 이 G.....라는 약품은 한번 개

봉하면 사용할 수 없지. 1그램 얼마 하는지 자네도 알겠지. 이런 가난한 병원에서 뇌빈혈로 일일이 이런 약을 쓴다면 어떻게 되겠나. 자네.”

나는 혀가 잘 돌아가지 않는 영성한 독일어 tac음을 들으면서 코웃음을 쳤다. 한 병의 약품 가격보다 경멸된 여자환자의 생명이어.....

나는 아이에게 탁한 젖을 먹일 결심이, 비랍처럼 쓸쓸히 가슴 속에 날아 온 것을 느꼈다. (86쪽)

이렇듯 체념 후의 심정을 그리고 있다. 아이를 죽음으로 이끈 「젖을 먹이는 심정은 가벼운 줄음에 비유되는 것처럼 기분이 상쾌하다. 이것이 어머니 심정의 시작이다」라며 「나」는 마치 모성이라도 깨달은 듯이 서술하고 있지만, 이것은 다이코의 문제점으로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고마샤쿠 기미(駒尺喜美)는 「그녀가 運動家이기에 우유획득의 투쟁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적어도 한 마디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것을 포기한 것에는 『깊은 허무(深いニヒル)』가 노출되어 있으며, 그것은 투쟁이 不在된 문학」<sup>24)</sup>이라고 지적한다. 필자는 고마샤쿠 기미의 눈에 수긍한다. 「나」는 아이의 사망소식을 간호부에게 들었지만, 「그렇습니까?」라며 「아무렇지 않은 듯 태평하게 대답한다. 아이의 사망에 대해 「나」는 극도로 쇠약해진 육체로 인해 그다지 충격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산 지옥에서 겪은 체험으로 인해 「여자여, 미래를 믿어라.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다면 깊은 까닭에 투쟁」 하겠다는 결의를 포기한다. 여기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위엄도 존중되지 않는 시료실에서의 절망적 상황으로 인해, 「나」는 「깊은 허무」는 느끼며 아이를 구하려는 시도를 체념한 것이다.

## (2) 『캐러멜 공장에서』의 경우

『캐러멜 공장에서』는 사타 이네코의 自伝的系列의 첫 번째 작품으로 문학적 출발을 이룬 기념비적 작품이다.<sup>25)</sup> 이 작품에서는 가부장적 억압과 계급적 억압이라는 이중적 억압에 괴로워하는 히로코의 고충이 묘사되었다. 히로코는 사타 이네코가 그린 여주인공 중에서도 수동적으로 자신의 숙명에 순종하는 여성이며, 그 때문에 정통적인 여성상에 가장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작품의 구조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억압에 의한 계급적인 억압이라는 인과관계가 나타나있다. 작품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버지의 실직과 이혼과 기울어진 집안형편으로 인해, 히로코는 小學校를 중퇴하고 캐러멜 공장에 취직하게 되며, 이곳에서 가혹한 노동을 체험한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에서는 명백히 아버지라는 권력으로 어린 딸을 지배하려는 가부장적 억압이 두드러진다.

작품의 2장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설명이 눈에 띈다. 「3·4년 앓다 죽은」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유흥에 빠져 얼마 안 되는 부동산도 탕진한 아버지는 두 아이를 데리고 재혼했지만, 「프티부르주아(プチブル)적 생활」에 대한 동경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가장으로서 일가의 생계를 책임지는 「방침과 계획」 하나 없이, 새로운 활로를 구하고자 도쿄에서 생활했지만 실패로 그치고 만다. 그는 술을 마시고는 가족에게 화풀이할 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 탓에 아버지로서의 자각이 결여된 무책

24) 駒尺喜美(1968), 「施療室して」『国文學』, 第13卷5号4月号, 學燈社, p.57.

25) 澤田章子(2000), 「佐多稲子「キャラメル工場から」」, 民主文學NO.413, 日本民主主義文學同盟, P.128.

프롤레타리아시대의 사타 이네코 작품에는 『간부여공의 눈물(幹部女工の涙)』 『小幹部』 『무엇을 할 것인가(何を爲すべきか)』 등, 섬유공장 쟁의에서 취재한 역작이 있으며, 자전적 작품으로는 『캐러멜 공장에서(キャラメル工場から)』 『잇꽃(くれなる)』 『맨발의 소녀(素足の娘)』 『나의 도쿄 지도(私の東京地図)』 등이 있다.

임하고 허영심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무계획적인 생각」으로 히로코를 공장으로 내몬다.

“히로코도 한 번 이 곳에 가볼래?”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고 신문을 툭 내던졌다. 밥공기를 든 채로 신문을 슬쩍 엿본 히로코는 아버지의 그 말에 아무렇지 않은 듯 침묵했다. 어느 캐러멜 공장에서 여공을 모집하고 있다. 히로코는 고개를 숙이며 묵묵히 밥을 마구 입안에 넣었다. 가족들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

“왜 그래? 히로코”

잠시동안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며 살며시 웃었다. (181쪽)

아버지는 어느 날 아무런 생각 없이 신문광고를 보다가, 히로코를 캐러멜 공장에 보낼 것을 생각해낸다. 그 이유는 어처구니없게도 「공장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캐러멜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히로코는 공장주의 미묘한 착취를 받는다. 그리하여 그녀는 배태랑 여공에게 못 미치는 작업량으로 집안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하루 일급을 모조리 출퇴근 차비로 다 쓰게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하하하, 건방지게도— 언제 요즘 작업량 역시 2개 반이야?”

야유적인 아버지의 말에 히로코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다. (187쪽)

아버지와 공장주의 처사에 대해 분노의 시점을 지니지 못한 히로코는 합리적이지 못한 아버지를 책망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가족의 힘이 되지 못하는 자신의 역량부족을 한탄하며 부끄러워한다. 이 가련한 소녀의 뼈아픈 고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해, 와타나베 스미코(渡邊澄子)는 「표현자 및 작품에 감동하는 독자의 의식구조에 制度内の 여성상에 대한 긍정」<sup>26)</sup>이라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독자는 히로코를 동정하여 자본주의사회의 가부장적 제도에 대해 분노를 느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소설은 <공장>이라는 배경을 통해 여공의 착취 실태가 극명하게 문제시되며 계급적 억압이 선명하게 표출된다. 이 작품 내의 <공장>은 시대적으로 산업·경제의 근간을 지탱하는 하층세계의 은유이다. 다수의 프롤레타리아문학에서 가혹한 노동조건 하에서 신음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이 그려진 것처럼, 여기에서도 가혹한 노동조건과 착취구조가 표출된다. 여공생활을 시작하게 된 히로코를 통하여 작가가 제시하고자 하는 계급적 억압의 문제점을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볼 수 있다.<sup>27)</sup>

- ① 임금, 벌금제도의 문제
- ② 열악한 노동환경의 문제
- ③ 굴욕적인 인권침해

우선, 가장 많이 나타나는 ① 임금, 벌금제도의 문제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26) 村松定孝·渡邊澄子編(1990), 앞의 책, p.14.

27) 1927년의 金融恐慌, 잇따른 1929년의 世界恐慌으로 인해 대량의 실업자가 생겨났다. 농촌의 궁핍화에 수반되어 딸을 일터에 보내는 농촌이 증가했으며, 가장 적합한 직업이 여공이었다. 여공의 수는 1929년의 경우 969,835명에 달했다.

山下悦子(1988), 『日本女性解放思想の起源—ポスト・フェミニズム試論』, 海鳴社, pp.141-142.

그녀의 공장에는 지각이 없었다. 공장의 문닫는 시간은 정각 7시였다. 지각한 그녀는 이 날 하루 어쩔 수 없이 일을 쉬게 되었다. (179쪽)

사무원은 한 쪽 편의 벽면에다, 발돋음을 해가며 종이 한 장을 붙였다. 전날의 성과표였다. 우등자 3명과 열등자 3명의 이름이 날마다 붙여졌다. (182쪽)

공장에서는 요전 일급제가 중지되고, 1번의 임금을 계산하도록 되어져있다. 1번에 7錢이었다. 일에 익숙해진 소녀들은 수입이 많아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녀들은 오늘날까지의 일급과 같은 임금을 받기 위해 더욱 더 그녀들의 몸을 혹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87쪽)

공장에서의 노동은 물론, 기상, 식사, 통근 등의 일상생활에 있어 그녀들은 시간제약을 받는다. 공장의 작업개시는 아침 7시. 이 시간에 1분이라도 지각이라도 한다면 비싼 차비를 들여 출근한 히로코는 발걸음을 집으로 돌려야한다. 작업성적에 수반되는 경쟁의식. 공장 측에서는 여공들의 경쟁의식을 부추겨 생산고를 올리기 위해, 노동자의 서열화를 만들어 우등자/열등자의 이름까지 벽에다 붙이도록 한다. 히로코는 학교에서는 항상 성적우수로 이름이 붙여졌지만, 여기서는 열등자에 속하는 굴욕적인 체험을 경험한다. 노동자의 능력을 임금에 반영하는 생산시스템을 통하여, 그녀들은 하루 12시간이나 자신들의 몸이 「여느 때처럼(いつものように)」 계속 일할 것을 요구받는다. 다음은 ② 열악한 노동환경의 문제와, ③ 굴욕적인 인권 침해를 들 수 있다.

그녀들의 작업실 뒤편은 강을 향해있었다. 그 방에는 하루종일 빛이 들지 않았다. 방 입구는 공장 안의 어두운 통로가 있어서, 빛은 강 쪽 창문에서만 들어왔다. 창 너머로 빈 통을 쌓은 배와 쓰레기를 실은 배가 하루종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183쪽)

그녀(공장주 부인)는 그곳에서 만족스러운 듯이 미소짓고 있었다. - 소녀들이 변함 없이 유순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은 퇴근시간 사람을 시켜, 문 앞에서 여공들 한사람, 한사람 소매 자락과 호주머니와 도시락 통 안까지 검사했다. 모두들 추운 곳에서 순서가 오길 서서 기다리고 있다. (185면)

하루종일 빛이 들지 않는 작업장, 시궁창 하수구 냄새. 이런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소녀들은 기계적인 작업을 서두른다. 또한, 공장 측에서는 고급상품인 캐러멜 분실을 우려해 퇴근 시에는 여공 「한사람 한사람의 소매 자락과 호주머니와 도시락 통 안까지 검사」하는 굴욕적인 행동을 시도한다. 전근대적 노동조건 하에 집요히 가속되어진 굴욕적인 인권침해의 장면이 담담히 그려졌다. 작품은 이와 같이 인권을 무시한 불평등사회가 시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독자에게 호소한다. 그리고 그 효과는 작품 속에서 훌륭하게 묘사되어져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두 프롤레타리아작품에서 나타나는 여성들은 현모양처사상과 계급적 억압이라는 이중적 억압으로 인해 고충을 토로하지만, 이러한 억압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항하며 저항하는 모습은 극히 희박하기만 하다.

## 5. 결 론

이 글은 근대여성문학의 전반적인 개관과 더불어, 昭和初期의 대표적 프롤레타리아 여성작가인 히라바야시 다이코와 사타 이네코의 작가로서의 출발과 작품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두 작가의 초기 대표작 『시료실에서』와 『캐러멜 공장에서』에서 나타난 가부장적인 억압과 계급적 억압의 양상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여성소설의 특성을 진단해 보았다. 이는 昭和初期라는 시대적 배경 하에 여성을 둘러싼 불합리한 현실과 그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히구치 이치요 이후 대부분의 근대 일본여성작가들은 「사회와 家와 남성의 억압 하」<sup>28)</sup>에 놓여진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들의 현실적 고충을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하며 <자아확립>을 추구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통적인 일본의 여성교육은 <남편은 곧 하늘(夫=天)>이라는 유교적인 「온나다이가쿠(女大學)」와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현모양처주의에 의하여 여성은 남성과 대등한 인격을 존중받지 못한 채 열등자인 여성으로 만들어져왔다. 일찍이 明治開化期부터 大正期 『靑鞆』 여성작가들은 현모양처주의라는,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근대일본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남녀 평등사회>와 더불어 <여성해방><여성자립>을 주창한다.

昭和初期 프롤레타리아문학의 대표적 여성작가인 히라바야시 다이코와 사타 이네코의 활동기반이 된 「文芸戰線」과 「戰旗」등의 프롤레타리아문학 또는 運動誌에 의해, 자기주장과 그 자기표현의 가능성을 획득한 그녀들은 봉쇄된 자아 해방을 추구하며 의식적·의욕적으로 문학적 자질을 꽃피웠다. 특히 『시료실에서』와 『캐러멜 공장에서』에서는 비참한 생활을 참아내려는 여성들의 괴로움, 슬픔, 고충 등이 적나라하게 고백되어져 있는 까닭에 프롤레타리아문학의 걸작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무산계급 운동가 여성과 하층 노동자 여공을 주인공으로 부각시키며 프롤레타리아운동을 이루어 낸 두 작품의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박차를 가해진 昭和初期에 지금까지의 여성문학에서 볼 수 없었던 하층 여성의 삶을 조명해 낸 것이다. 하지만, 가부장적인 억압과 계급적 억압으로 말미암아 여성해방의 중요성 인식은 결여되어져 있다. 이전 여성문학에서는 남편과 아버지에게 의한 가부장적 억압만이 지적되어져온 반면, 프롤레타리아 여성문학에서는 이에 더하여 계급적 억압이라는 이중적 억압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그려진다. 두 작가가 암암리에 복종, 인내, 정숙, 인내, 헌신이라는 여성적 미덕 즉 현모양처주의에 수긍하였기에, 두 작품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투쟁하려는 자세 또한 미흡하다. 따라서, 이전 여성문학에서 제시된 <여성해방>과 <여성자립>이라는 현안이 일보 후퇴한 양상을 띤다. 두 초기 작품에 프롤레타리아 해방의 문제가 다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말이다. 이는 프롤레타리아문학운동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다.

28) 山田有策(1976), 「男を描く女流文學の眼」, 『解釋と鑑賞』, 至文堂, p.78.

## 【参考文献】

- ・ 한국일어일문학회(2003)『키워드로 읽는 日本文학2 나쓰메소세키에서 무라카미하루키까지』, 글로세움, p.151
- ・ 下中邦彦(1982)『日本文學事典』, 凡人社, p.339
- ・ 今井泰子・藪貞子・渡邊澄子編(1987)『短編 女性文學 近代 増補版』, おうふう, p.10. pp.252-273
- ・ 奥野健男(1974)『女流作家論』, 第三文明社, p.78
- ・ 栗原幸夫(1997)『文學史を讀みかえる』研究會編,『廢墟の可能性』, インパクト出版社, p.154
- ・ 中山和子(1999)『女性作家評伝シリーズ8 平林たい子』, 新典社, p.51. pp.175-176
- ・ 平野謙(1959)『現代文學史』, 筑摩書房, p.21
- ・ 村松定孝・渡邊澄子編(1990)『現代女性文學辭典』, 東京堂出版, p.12,14,163, pp.400-472
- ・ 宮本百合子(1973)『文學にみる婦人像』, 新日本出版社, p.27
- ・ 三好行雄・竹盛天雄編(1977)『近代文學 3』, 有斐閣双書, p.245
- ・ 山本功(1987)『日本プロレタリア文學21 婦人作家集(1)』, 新日本出版社, pp.76-90. p.441
- ・ 山本功(1987)『日本プロレタリア文學22 婦人作家集(2)』, 新日本出版社, pp.179-188
- ・ 山本健吉(1959)『昭和の女流文學』, 實業之日本社, p.266
- ・ 山下悦子(1988)『日本女性解放思想の起源一 ポスト・フェミニズム試論』, 海鳴社, pp.141-142
- ・ 脇田晴子・林玲子・水原和子編(1987)『日本女性史』, 吉川弘文館, p.228
- ・ 渡邊澄子(1996)『女々しい漱石、雄々しい鷗外』, 世界思想社, p.18
- ・ 渡邊澄子(1998)『日本近代女性文學論』, 世界思想社, pp.1-19
- ・ 渡邊澄子(2000)『女性文學を學ぶ人のために』, 世界思想社, p.118
- ・ 和泉あき・江種満子・渡邊澄子 共編(1982)『現代文學』, 學術図書出版社, p.61
- ・ 東郷克美・小森陽一・石原千秋 共編(1988)『講座昭和文學史第一卷』, 有精堂, pp.82-82, p.167
- ・ 駒尺喜美(1968)『施療室して』『國文學』, 第13卷5号4月号, 學燈社, p.57
- ・ 大塚博(1980)『女流の前線』『國文學』, 第25卷15号12月号, 學燈社, pp.84-88
- ・ 中山和子(1976)『平林たい子 一 初期の世界』, 文芸研究(明治大學), p.114
- ・ 長谷川啓(1992)『フェミニズムの言語』『國文學』, 第37卷13号11月号, 學燈社, p.108
- ・ 澤田章子(2000)『佐多稻子「キャラメル工場から」』, 民主文學NO.413, 日本民主主義文學同盟, P.128
- ・ 山田有策(1976)『男を描く女流文學の眼』『解釋と鑑賞』, 至文堂, p.78

## 要 旨

昭和に入って社會の慌しい動きとそれに伴う社會主義運動、プロレタリア文學の流れは女性作家の意識を変える。これまで愛情と相克の對象だった男たちも同じく壁の中に封じ込められた存在であり、男たちと共に女たちも人間らしく生きていきたいと願った。

本稿では明治開化期から昭和初期までの女性文學の概觀とともに、昭和初期の代表的なプロレタリア女性作家といわれている平林たい子と佐多稲子の初期作品、「施療室にて」(1927)と「キャラメル工場から」(1928)の作品にあらわれている女性小説の特徴について述べてみたい。

平林たい子と佐多稲子は、それぞれ1905年と1904年に生まれ、プロレタリア作家の地位を確立し、その力量を認められたのが、1927年「施療室にて」と1928年「キャラメル工場から」によってであるから、まったく同時代作家であるといえよう。しかも、昭和のはじめほぼ同じ頃にプロレタリア文學運動の影響を受け、平林たい子も初期にはプロレタリア小説を書いているが本質的にはアナキズム系統の作家であったのに對して、佐多稲子は文字通りマルキズム立場にたったプロレタリア作家として成長したという面白い對照性をもっている。

平林たい子と佐多稲子の活動の基盤となった「文芸戦線」や「戦旗」などのプロレタリア文學または運動誌により、自己主張とその自己表現可能の舞台をこれらによって得た彼女たちは、封じこめられていた自我の開放を求めて、意識的、意欲的に歩みはじめた。特に平林たい子の「施療室にて」と佐多稲子の「キャラメル工場から」では、悲惨な生活に耐えている女性らのつらさ、悲しさ、苦しさが赤裸々に告白されていたので、プロレタリア文學の傑作として高く評価された。しかし、この二つの作品で示された、女性をひき出しおし出したプロレタリア文學運動の果たした意味は大きいのが、家父長的抑壓と階級差別から女性解放を重要性の認識の欠落があり、これらの問題と積極的に戦う姿勢はみえてこない。初期作品であるゆえにプロレタリア解放を問題は扱われているとしても、ここにプロレタリア文學運動の問題点があったといえるだろうか。

キーワード：プロレタリア文學, 昭和初期, 女性文學, 平林たい子, 佐多稲子,  
家父長的な抑壓, 階級差別, 女性解放

투 고 : 2004. 8. 31  
1차 심사 : 2004. 9. 11  
2차 심사 : 2004. 10. 2

住 所 : 305-330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874번지 대우APT 306동 803호  
電 話 : 042 -477 -5526  
E-mail : jisook26@hanafos.com